

“월드컵이 나를 기다린다!”

광주FC 4연승 달릴까

K리그 챌린지 34R...내일 시즌 마지막 홈경기

내년 6월 13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무대에 나설 32개국 이 확정되면서 '지구촌 축구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브라질 월드컵에는 ▲유럽 13개국(벨기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잉글랜드·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러시아·스페인·스위스) ▲남미 6개국(브라질(개최국)·아르헨티나·콜롬비아·우루과이·칠레·에콰도르), 북중미 4개국(코스타리카·온두라스·멕시코·미국) ▲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이란·호주) ▲아프리카 5개국(알제리·카메룬·코트디부아르·가나·나이지리아) 등 32개국이 본선 무대를 다투고 있다.

◇개최국 브라질 '최다 우승은 우리 것' = 브라질(FIFA 랭킹 11위)은 통산 다섯 차례나 월드컵 정상(1958년·1962년·1970년·1994년·2002년)에 오르며 역대 최다 우승에 빛나는 전통 강호다. 특히 대회가 자국에서 열리는 만큼 시차는 물론 경기장 환경에도 익숙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다.

선수 구성만 봐도 '제2의 펠레'로 불리는 네이마르(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오스카, 다비드 루이스, 하미레스(이상 첼시), 파울리뉴(보트넘), 헐크(제니트), 막스웰(라치오) 등 쟁쟁하다.

브라질의 최고 적수는 2011년 9월부터 무려 26개월 동안 FIFA 랭킹 1위를 고수하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비록 월드컵 우승 기록은 단 한 차례(2010년)에 불과하지만 최근 유로 2008에 이어 유로 2012까지 휩쓸면서 최고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스크 파브레가스(이상 바르셀로나),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 등 펠레의 달인들로 구성돼 뛰어난 조직력과 득점력이 장점이다.

브라질에 이어 4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도 브라질의 최다 우승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월드컵 3회 우승을 자랑하는 '전차군단' 독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군이다.

이 밖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앞세운 아르헨티나(2회 우승) 역시 1990년 이탈리아 대회 3위 입상 이후 별다른 성적을 내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본선 진출 32개국 확정...지구촌 축구전쟁 서막

브라질-이탈리아 다승, 호날두-메시 골 경쟁

지 못하고 있어 자존심 회복을 버리고 있다.

◇메시-호날두-네이마르 '골잡이 자존심 대결' = 우승팀만큼이나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축구의 꽃'인 득점왕(골든 슈) 경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단연 아르헨티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와 극적으로 본선 무대에 오른 포르투갈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골 대결을 기대하

고 있다.

20일 스웨덴과 가진 유럽예선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4골을 책임지며 포르투갈 A매치 최다 골기록(47골) 타이틀을 이룬 호날두는 경기후 트위터에 '브라질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글을 남겼다.

아르헨티나가 시드를 받아 조추첨 1그룹에 포함된 만큼 포르투갈과 같은 조에 포함될 수 있어 프리메라리가 무대에 이어 월드

컵 무대에서도 둘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 개최국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21)다. 네이마르는 벌써 A매치 46경기에서 나서 27골을 터뜨리며 경기당 0.59골을 쏘아 브라질 득점의 선봉 역할을 맡고 있다.

브라질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호나우두(8골)가 득점왕에 오른 이후 2회 연속 득점왕 자리를 독일이 빼앗긴 터라 네이마르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한편 FIFA는 12월 7일 새벽 브라질의 휴양지인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월드컵 조(組) 추첨식을 연다. 총 8개조를 편성하는 조 추첨은 4개 포트를 놓고 한 포트에서 한 국가씩 뽑아 한 조를 구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3연승을 달린 광주가 23일 홈 폐막전에서 연승 잇기에 나선다. <광주 FC 제공>

광주전사들이 홈 폐막전에서 창단 첫 4연승을 노린다.

광주 FC가 23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3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안방에서 치르는 시즌 마지막 홈경기다.

홈 폐막전에서 광주는 창단 첫 4연승에 도전한다. 경기가 승리로 끝나게 되면 경찰전 4연승과 3위 확정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

토종 공격수들이 4연승을 위한 공세를 펼친다. 광주는 지난 상주전에서 '공격의 핵' 루시오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중도에 귀국하면서 순수 국내파로 공격진을 구성했다. 루시오의 공백에도 막강 위력을 과시한 최전방은 상주의 12연승을 저지, 올 시즌 맞대결에서 첫 승리를 가져왔다.

임선영을 축으로 안동혁, 박현, 이광진 의 활발한 움직임과 절묘한 패스워크가 어울리면서 전방위로 상대 수비라인을 붕괴시켰다.

중원에서는 김은선의 물 오른 조율과 특유의 '한방' 그리고 여름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 박희성의 복귀도 반가웠다. 부상으로 돌아온 박희성은 김수범과 좌·우 윙백을 형성하며 질주했고, 마철준과 정우인의 센터백 콤비가 더해지면서 완벽한 포백이 갖춰졌다. 이 포백라인은 지난 상주전에서 상대의 파상공세를 막으며 2-1 승리를 지켜냈다.

홈 폐막전에서 만나게 된 경찰은 주축

선수들의 전역에 따른 후유증으로 후반기 어렵게 팀을 꾸려가고 있다. 전력 이탈로 초반 위력은 아니지만 클래식 무대에서 검증받은 스타급 선수들이 팀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아니다.

최전방에 정조국이 버티고 있고 중원에는 문기환 그리고 수비라인에는 오병석, 양상민이 있다. 주전 센터백 김동우와 시즌 내내 흔들릴 없는 방어력을 과시한 골키퍼 유현도 대기하고 있다.

광주의 키프레이어는 박현이다. 175cm에 65kg. 공격수로서 좋은 체격은 아니지만 탄탄한 기술과 좁은 공간에서의 재빠른 순간 동작, 두뇌 회전 등이 박현의 재발견을 가능케 했다. 지난 상주전에서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정확하게 공을 배달해준 장면은 박현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홈 폐막전을 맞아 4연승이라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날 광주 FC컵 시민축구대회 참가팀의 페널티킥, 체어리더 공연 및 국수원 무술시범, 시즌권 고객 에스코트키즈, 선수단과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등 이벤트가 열린다. 김치냉장고, 집식자전기, 백화점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했다.

또 선착순 3000명에게 팝콘과 따뜻한 차, 손난로 등을 제공하고 2013 시즌 기념 한정판 사인볼 100개를 관중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건강 김치로 사랑 나눠요”

광주 FC 26일 김장봉사

광주 FC 선수들이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을 한다.

광주 FC가 오는 26일 완주 지리산 산삼 농장에서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이 참가하는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광주의 후원업체인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과 대한적십자

사 광주봉사단이 함께하며, 선수단은 직접 산삼까지 채취해 영양가 만점의 산삼 김치를 만들 예정이다.

앞선 겨울에도 광주 선수단은 연탄 배달·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다.

한편 이날 만들어진 산삼김치 300포기는 광주지역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전달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2년만의 부활 '야구대제전'

다음달 5~12일 고교 선후배 화합의 장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현역 선수, 은퇴 선수, 메이저리그 및 일본에서 활약하는 야구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야구대제전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대한야구협회(KBA)는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포항야구장에서 광주일고·부산고·경남고·상원고 등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20개 고교팀이 참가하는 '2013 야구대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야구협회는 아마추어 야구를 활성화하고 프로와의 교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선수들이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한국야구 사상 최초로 올스타전으로 기획된 야구대제전은 1979년 처음 개최돼 프로야구가 태동하기 전인 1981년까지 3차례 열렸다. 올해 야구대제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8강까지는 7회, 준결승과 결승 경기는 9회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시작시에는 재학생 2명, 대학생 2

명, 프로 및 은퇴선수 6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6~7회(준결승·결승은 8~9회)에는 프로 및 은퇴선수가 제한 없이 출전할 수 있다.

대표자회의 추첨 결과에 따라 영남과 호남의 야구 명문인 상원고와 군산상고가 1회전에서 격돌한다.

상원고에서는 이만수·김시진·이광돈·안지만 등이 출전하고, 군산상고에서는 이진영·차우찬·정대현·김봉연 등이 맞붙을 예정이다.

메이저리거 3인방(서재용·김병현·최희섭)을 보유한 광주일고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을 배출한 동산고가 1회전에서 대결하며 해당 경기 승자는 추신수(신시내티 레즈)의 모교인 부산고와 한 판 승부를 펼친다.

내달 5일 개막전을 비롯한 주요 경기는 SBS ESPN과 유튜브코리아(www.ustream.tv)가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KIA 새 캡틴 이범호



“通 하는 호랑이 굴 만들겁니다”

KIA의 신임 주장 이범호가 '소통하는 팀'을 그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이범호는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회복훈련을 하며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범호에게 올 시즌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헬스케어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 122경기에 출전하며 부상 탈출을 알렸다.

양고 풀타임을 소화한 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부상에서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기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대가 되는 내년 시즌이지만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 올 시즌 김상훈의 부상 속에 임시 주장으로 역할을 했던 이범호는 내년 시즌 주장 완장을 찬다.

이범호는 "시즌이 끝나고 감독님께서 주

이용규와 윤석민의 공백이 있지만 주장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이끌며 올 시즌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이범호는 "야구는 특정 선수 한두 명으로 잘 할 수 없는 스포츠다. (이용규와 윤석민의 공백)우리팀 전력에는 분명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선수단이 얼마나 잘 뭉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주장을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며 "타이거즈라는 팀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서 잘할 때는 뜨거운 성원을 받지만 반대로 못할 때는 그만큼 욕도 많이 먹는다. 올해 팀 성적이 좋지 못해 혼도 많이 냈고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내년에는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구장에서 야구를 하게 돼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새로운 식구가 된 이대형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타팀에서 이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대형의 마음을 헤아려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커리어 하이'. 최고의 해를 만드는 게 이범호의 목표다.

이범호는 "타이거즈에서만 세 시즌을 보냈다. 첫 해에는 나름 만족스런 성적을 거뒀지만 부상으로 어렵게 시즌을 마쳤고 지난 해에는 최소 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내년에는 시즌 커리어 하이로 찍는 게 목표다. 중심 타자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후배·스태프간 소통과 예의 중요

윤석민·이용규 없어도 칭찬 받겠다”

과위가 살아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24개의 홈런을 날렸고, 타점도 73개를 만들어 나 지원(96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의 파괴력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범호의 시즌 득점권 타율은 0.189에 그쳤다. 병살타도 18개를 기록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다.

이범호는 "팀 성적이 좋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주축 선수로 책임을 통감한다. 개인적으로는 타율이 높지 못한 것과 특징점에 너무 약했던 게 아쉬웠다. 그래도 부상당하지

장 역할을 부탁하셨다. 고민도 됐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그리고 선후배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좋은 분위기에서 시즌을 보낼 수 있다. 최대한 많이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할 것이다. 감독님께서 자주 찾아 뵙고 선수들의 의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 또 하나 예의를 중요시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타이거즈는 전통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팀이었다. 이 부분은 타이거즈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